

# 연결부위가 없는 ‘롱 히팅 매트-로!’

## 욕실과 주방 등 원하는 곳 어느곳이나 설치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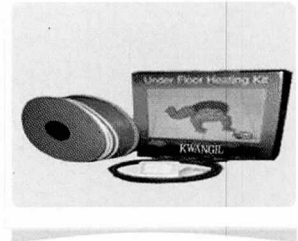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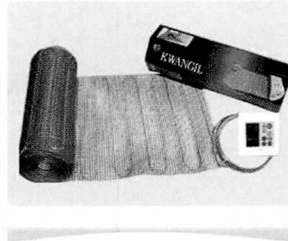
이번호에는 사람과 자연을 생각하는 기업 (주)광일시스템(대표 김상수)을 만나보았다.

김상수 대표는 “광일산업으로 93년에 창업하여 90년대부터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되었던 심야 전력기기 수요확산 정책에 따라 난방시스템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자 에너지정책적인 전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빚어지면서 그것을 해소하기위한 수단으로 급기야는 정부의 외적인 제도적 힘

김상수 대표

이 가해지면서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업체간의 끊임없는 가격경쟁이 이루어져 품질의 향상보다는 오로지 판매의 목적달성에서 불러온 소비자의 피해와 불신을 회복하지 못한 채 방치되었던 참으로 아쉬웠던 기억이었다.” 며 “이에 동종제조업을 하는 한사람으로서 그 책임에 대해 통감하며 광일시스템은 종전과 변함없이 수도권내에서 한국전력공사 등을 통해 접수되는 수요 고객중 B업체들의 민원A/S를 10년 동안 실시하여 왔던 것처럼 고객님의 불편이 최소화 될 때까지 향후2년 동안 연장 유지하여 B. P 서비스로 고객님의 한발 다가서는 회사가 되고자 한다”고 하였다.

(주)광일시스템이 새롭게 내놓은 연결부위가 없는 롱 히팅 매트-로 바닥 난방이란? 난방에 있어서 바닥의 가열은 안락한 공학의 개념이다 그것은 바닥에서 열을 위



연결부위가 없는 롱(Long)히팅매트-로

쪽으로 제공하며, 의심할 여지없이 가열 적용의 최고의 해답이다. FLOOR HEATING MATS는 타일 또는 나무 얇은 판이 겹쳐지는 바닥의 아래에 설치할 수 있고, 욕실과 주방 및 따뜻한 바닥을 원하는 어느 곳이나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심야 축열식 복식전기온돌(M.I Heating CAble)은 한번시공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난방으로 그 수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발열전선은 조절기와 연결되는 리드 선을 제외하고는 연결부분이 전혀 없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근본적으로 하자요인이 전혀 없다. 그 밖의 제품으로는 시공이 간편한 맞춤형 전기온돌!! 짹~~퍼서 시공할 수 있도록 도면에 맞춤 생산출고 하는 씨즈 히터 전기온돌이 있다.

(주)광일시스템이 공급하여온 난방기중 특히 축열식 전기 M.I 온돌 제조와 일반전기 M.I Heating Cable 제조보급이 최근에 이르러 반영구적인 수명을 요하는 박물관등에 중요건축물에 적용되어서 품질을 인정받게 되어서 더없는 영광으로 알고 "전사제품관리" 라는 경영방침과 "고객께 5분 더 할애하자" 라는 기업이념아래 보다 건강한 제품을 생산하여 고객여러분께 질적 선택에 있어서도 풍요로워 질수 있도록 끊임없는 품질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심야기기를 규제가 능사가 아니고 외국에서처럼 이미 보급하여 시행되고 있는 상시전력(산업용.농사용.교육용)을 이용하여 난방 및 스노우멜팅(동파방지)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열량을 자유롭게 공급하는 상시 전력제도 도입을 강력히 주장 하였다. 또한 외국에서나 인도 중국에서도 시행하는 모든 전기기기 사용에 접지부위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며 전기안전 문제가 심각하다고 고하였다.

최근에 대통령 자문 지속발전가능위원회에서 심야제도 시민배심원제도를 도입하여 배심회의를 하는 것도 배심원들은 제도 도입한 것에 의미를 두지만 무심코 던진 돌맹이에 개구리 맞아죽는다는 말이 있듯이 심야기업계에서는 절대 절명의 위기인 것처럼 정부에서도 수직적인 전달 방식이 아니라 미리 예고도하고 하는 그래야 업계에서 준비를 하지 않나 하는 바람이라 했다.

심야기업계에서도 개인의 이익보다는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단체는 어려울때 힘이 되는 것을 업계는 명심하자고 하였다.

김 대표는 색소폰 연주를 취미로 하면서 동호인들과 함께 불우이웃 등에게 봉사활동도 하면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등 분주하게 살고 있다.